

Color Magazine

vol.28



SH S 1070-G50Y

SAMHWA



S/C/D
Samhwa Paints Color Design Center

NCS
NATURAL COLOUR SYSTEM



Color Nuance of the Year 2017
‘Botanical Fuse’

삼화페인트 컬러디자인연구그룹이 제안하는 2017 올해의 컬러 뉘앙스 키워드는 ‘Botanical Fuse’이다. 글로벌 자료 분석 결과, 3개년도 컬러 변화 추이에서 다른 컬러 보다 중요성과 영향력 증가 폭이 상대적으로 가장 큰 컬러인 Green을 중심으로 선정 한 Botanical Fuse의 5개 컬러는 디지털 시대의 초연결성에서부터 일상 속 내추럴 라이프스타일, 테크놀로지와 바이올로지의 융합적 창조성에 이르는 키워드들을 내포하고 있다.

2017년 주목받을 컬러로는 Natural Green, Earthy Brown, Rich Red, Dusty Pastels와 함께 Neon 컬러의 재부상 등이 예상되는 가운데, Green의 영향력과 스펙트럼이 가장 광범위하게 표현될 것으로 보인다.

맑고 청량한 Lime이 내추럴 컬러보다 네온 컬러에 가깝게 표현되어 디지털 시대의 초연결성을 대변함과 동시에, 보태니컬 플랜트와 아웃도어 라이프, 내추럴 라이프스타일 등의 영향으로 Yellowish Green이 다시 인기를 얻어 Yorkshire Green과 같이 중채도의 카키 컬러가 중심축을 이루게 된다. 인체나 자연에 유해한 화학물질과 프로세스를 가능한 제외하고자 하는 움직임에 따라 기존의 리치톤 컬러들이 보다 절제되고 정제된 뉘앙스로 나타나는데, 이는 자연 그대로의 컬러와 소재들이 어반 라이프스타일에 보다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다.

다소 다크한 무드의 Dolphin Gray는 2018-2019 FW 시즌의 영향으로 새롭게 주목받는 컬러이다. 테크놀로지와 바이올로지의 융합으로 인해 Botanical 컬러와 패턴들이 디지털화되고 전혀 새로운 다양한 패턴과 장식적 요소로 나타난다. 여기에 Fiery Oak가 어우러져 서로 다른 시공간과 문화적 요소를 넘나드는 정신적 가치를 표현할 수 있으며, 지난 시즌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다소 인공적인 무드의 Process Green도 당분간 컬러 팔레트의 한 축을 차지할 전망이다.

컬러디자인연구그룹은 올해의 컬러 뉘앙스를 통해 하나의 유행색 지정이 아닌 인테리어, 자동차, 가전, IT산업 등 컬러 디자인 관련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컬러 흐름을 제시하고자 하며, 컬러 디자인에 있어 감성 표현에 중요한 뉘앙스를 달리하여 제안하는 것으로 배색 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특히 NCS 컬러 시스템은 자연의 컬러와 사람의 컬러 인지 과정에 기반한 체계적인 컬러 시스템으로, 감성 표현에 중요한 뉘앙스의 차이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다. S



Monthly Color Point April and May

April color 'Plastic Pink'

(SH S 0530-Y90R)

핑크는 사랑스럽고 낭만적이며 여성스러운 이미지를 전달한다. 워톤의 소프트한 핑크는 귀엽고 아기자기한 여성스러움을 전달한다면, 쿨톤의 핑크는 퍼퓸의 향기가 나는 듯한 성숙한 여성스러움을 준다. 또한 유사 컬러의 퍼플이나 핑크의 소품을 함께 배색한다면 배가된 성숙함을 강조할 수 있다. 이뿐 아니라 핑크는 폭력성과 분노, 억압, 불안, 대립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완화하고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어 실내에 적절히 사용한다면 테라피적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더불어 넓은 면적에 적용하는 것이 다소 부담스러울 경우, 핑크 컬러가 들어간 작품이나 기하학적인 패턴이 있는 캔버스 소품을 이용하여 장식적인 효과를 누리는 것 또한 공간 활용을 위한 좋은 팁이 될 것이다.

이 계절, 다른 계절보다도 핑크는 더없이 많은 에너지를 뿜어낸다. 생동감과 흥분감, 설렘, 활력 등을 유발하여 겨우내 움츠렸던 감정들을 몰아내기도 하듯 힘차게 발산하는데, 핑크 호흡법 등을 이용해 쌓였던 독소를 제거하는 것도 좋고, 실내 공간에 쿠션이나 액자, 화병 등의 소품으로 손쉽게 분위기를 바꿔보는 것도 좋다.



May color 'Pistachio Ice'

(SH S 1020-G20Y)

파스텔톤의 연한 그린은 시각적 휴식과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동시에 부드럽고 따뜻하며 평화로운 이미지를 연출한다. 화이트 오크나 폴리싱 처리된 화이트 하이그로시와 적절히 매치하면 밝고 경쾌한 공간 구성이 가능하다. 또한, 그린에 주는 테라피적 효과로 심리적 안정과 집중도를 높여주기 때문에 산만한 아이의 공부방에 적용한다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정서상 그린 컬러를 단독으로 사용하기 부담스러울 경우에는 같은 톤의 블루, 옐로, 핑크 등과 톤인톤 배색하여 매치한다면 경쾌한 실내공간이 연출되어 자존감이 떨어진 아이에게 더없이 좋은 구성이 된다. 더불어 생별에 상관없이 아이들의 학습효과를 높이고, 가구의 색에 구애받지 않으면서 충분히 안정적이고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어 그 어느 계절보다 좋은 선택이 아닐 수 없다. 봄의 따스한 햇볕이 창가를 통해, 온 방 안을 비출 때 빛나는 그린은 상큼함을 머금어 신선한 양질의 공기를 제공해줄 것이다. 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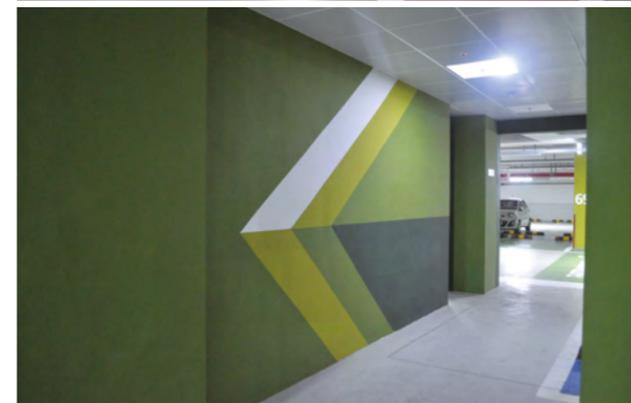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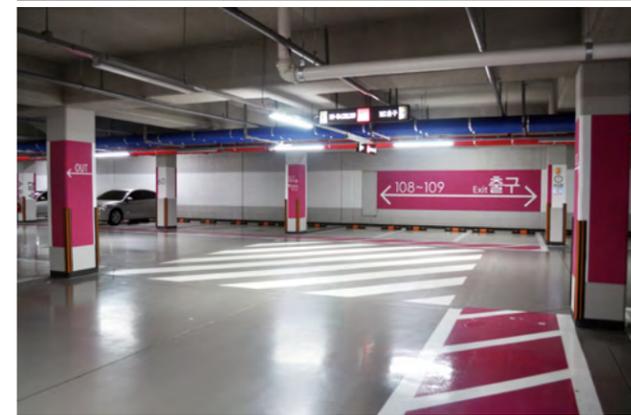
Colorful Apartment 형형색색 컬러로 물드는 아파트



최근 경기도와 지방 일부 지역에 신도시와 혁신도시 개발로 신축 아파트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러한 아파트 시장 상황을 읽고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컬러디자인연구그룹은 매년 전국 신축 아파트의 외장 컬러 경향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신축 아파트의 컬러 경향과 마감재 트렌드를 파악한다.

이번 조사를 통해 분석한 최근 컬러 동향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의 변화를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색상의 다양화이다. 과거 주로 옐로우(YR) 계열과 그린(GY) 계열의 컬러가 많았다면, 최근에는 블루그린(BG) 계열과 퍼플(RP) 계열까지 컬러가 다양화되는 추세이다. 이는 컬러의 변색이 두드러졌던 블루, 퍼플 컬러 군에서 제품의 내후성 등 물성이 강화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런 다양한 컬러들은 과거에 비해 더 선명한 색들이 요구되면서 고채도의 컬러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입면에서 매스감을 통해 보여질 수 있는 한계와 브랜드의 다양한 시도 때문으로 예측된다. 두 번째는 자재와 디자인의 다양화이다. 입면의 컬러 배색과 디자인이 전보다 더 과감해지고 있으며, 고채도의 색상 면적이 넓게 분포되어 전통적인 개념에 변화가 일고 있음으로 해석된다. 기단부와 동 출입구와 같은 특화 구간에도 다양한 소재의 사용과 새로운 디자인이 나타나는데, 근거리에서 보여지는 컬러에도 꾸준히 다양한 변화를 주고자 함을 알 수 있다.



1928년 르 코르뷔지에가 현대 건축의 5원칙(필로티, 옥상정원, 자유로운 평면, 수평창, 자유로운 파사드)을 구현한 주거의 이상을 담은 '사보아 저택'을 선보이고, 17년이 흐른 1945년 세계 최초의 현대식 아파트인 '유니테 다비타시옹'을 선보인 후 세계는 르 코르뷔지에의 콘크리트 건물에 열광하였고, 정해진 구획 안에서의 도시 계획은 건축으로 세상을 혁명시킨 그의 공로가 고스란히 오늘날에 이어지고 있다. 현대에 이르러 덩어리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시도하고, 특화하고 차별화하기 위한 여러 구상들을 시도한다. 덧대고, 제거하고, 왜곡시키고, 돌출시켜 평평한 매스가 주는 위압감을 좀 더 인간적인 세이프로 느낄 수 있도록 애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디 이뿐만인가? 입체적인 느낌을 주고, 다양한 입면의 변화를 보여주기 위해 컬러 마감은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나타내기에도 더없이 좋은 소재가 아닐 수 없다.

아파트 단지의 규모에 따라 설치하게 되는 미술 장식품이나 어린이 놀이 시설물 그리고 필로티 내부는 이야기를 담기 위한 노력이 엿보인다. 많은 분야에서 시도하고 있는 스토리텔링 기법은 이야기의 구성 정도에 따라 많은 소통을 담아낼 수 있기에 대다수의 브랜드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동화 속 이야기가 현실로 재현되어 그날의 기분에 따라 변화된 감정을 담아낼 수 있기 때문이라. 비단 미술 장식품에서 벗어나 어린이 놀이 시설물을 통해 보이는 놀이기구들조차도 이야기가 숨어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가 많지는 않을 것이다. 그 때문에 컬러의 사용은 더욱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해졌다. 이야기에 따라 컬러를 구성할 수 있기에 브랜드뿐만 아니라 배경 안에서 시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톤 차이를 두거나, 색상 차이를 크게 두어 개성을 살린 적극적인 시도가 다양해지고 있다. S

